

낙심이 될 때

성경말씀: 렘15:1-21

지난주: 살다 보면 인생에 기근이 올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인생의 기근’을 보내 정책하신다. 긍정적 기근, 부정적 기근, 둘 다 멈추고 돌이켜서 생각해야 한다.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만 기근을 풀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최선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인생에서 낙심이 될 때>

예레미야의 낙심

사람은 살면서 다 낙심한다.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낙심을 투명하게 표현한다(12, 17, 18, 20장). 오늘 읽은 10절 말씀은 연극의 독백과 같다.

햄릿 3막 1장에 침통한 표정을 한 햄릿이 등장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레미야의 낙심은 아직 최저의 바닥에 이르지 않았다. 최저의 바닥은 20장에서 나온다. 거의 다다랐다.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대언자로 부름 받음(렘1:5). 그런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함.

낙심의 원인: (1) 기도의 응답이 없음(1-14), (2) 부당한 고난을 당함(10, 15), (3)순종에 대한 대가가 없음(16-18)

(1) 기도의 응답이 없음

14장 후반부의 기도: 완벽한 기도,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최고의 기도

그런데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응답인가? 아니다 응답이 아니라 혹독한 심판이다(1, 2절).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 들어 줄 수 없다.

또한 네 종류의 심판 도구를 알려주신다(3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주변 민족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는다(4, 5절).

거짓 대언자들이 ‘평강, 평안, 화평’을 외쳤지만 그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7절).

가족들이 멸절되고 과부들이 늘어나며 젖먹이들의 어머니들이 죽고 나머지는 칼에 넘겨짐(8-9절).

이 모든 심판의 근본 원인(4절): 므낫세(히스기야의 아들, 요시아의 할아버지), 가장 사악한 왕, 55년 통치, 왕하21:1-17, 그의 시대에 굳어진 우상 숭배를 도저히 제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

몰락을 위해 아들을 불 가운데로, 하늘의 천체 숭배, 바알 제단, 숭배,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을 채움(16절)

예레미야의 교훈: (1) 죄의 삶은 사망이다(롬6:23).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한다.

(2)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중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중보자 혹은 기도 대상의 죄

(3)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4)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 백성처럼 죄인이다: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예레미야의 기도, 목사의 기도, No!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모세의 기도: (1) 출32장, 시내 산에서 율법 수여, 백성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함(32:7-10). 모세의 중보와 기도(32:11-12), 하나님의 응답(32:14)

(2) 민13-14장, 가나안 탐지, 백성이 안 들어가겠다고 함, 하나님의 멸절(14:11-12), 모세의 중보(13-19, 19), 주님의 응답(20), 2번 응답

사무엘의 기도: 삼상7,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 위협, 미스바에서 중보 기도(5), 하나님의 응답(9)

백성이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기도, 하나님의 응답(삼상12:19-25), 2번 응답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대언자들의 한계: 죄들로 인해 기도할 수는 있으나 속죄를 이루지는 못한다.

중보와 동시에 완전한 속죄 희생을 드려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함.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 십자가 희생

히7:25-27

모세도 사무엘도 예레미야도 소용이 없다. 목사도 교회도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

(2) 부당하게 고난을 당함

예레미야는 10, 15절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음을 불평한다.

10절: 돈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저주한다.

“이게 웬일입니까?” “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딤후3:10-13),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무 지쳤다. 목사 기도 필요

(3) 순종의 대가가 없음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까?(16-18)

(1)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였다(16). 심지어 그것들을 먹었다: 양식으로 삼았다.

그 말씀들이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가?

(2) 여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17, 시1:1). 주말에도 홀로 앉아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였다.

주님을 섬기려면 세상의 안락, 게으름, 더러운 대화, 술 취함, 조롱, 음행을 삼가야 한다.

(3) 그런데 왜 내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18), 강인줄 알고 갔더니 물이 없다.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19-21)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도 그렇지 않다.

기도 응답이 없고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순종해도 보상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다.

전투함이 안개 속에서 향해 중 다른 배의 불빛을 보고 “부딪힌다. 동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반대쪽에서 응답 “부딪힌다. 서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사령관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다시 “부딪힌다. 동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반대쪽에서 다시 응답 “부딪힌다. 당신이 서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사령관이 화가 나서 다시 “이것은 전투함이다. 사령관이다. 동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외침.

반대쪽에서 다시 응답 “이것은 등대다. 당신이 서쪽으로 15도 틀어라.”

하나님은 이 등대와 같다. 그분이 계신 곳은,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옳다. 그분은 움직이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전투함과 같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19절): (1) 돌아서라. 방향을 바꾸라.

저 유다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돌이켜라. “네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다. 너 역시 죄인이다. 네 행위로 내게 나오려고 하지 말라.”

“주일성수, 십일조, 새벽기도, 특새, 성전건축헌금, 킹제임스 성경, 침례, 목사, 집사, 30년…”
예레미야는 수년 동안 유다 백성보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보고 돌이키라고 한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철저히 돌이켜야 한다.

(2) 천한 것에 귀한 것을 취하여 내면 대언자 노릇을 바르게 하리라(19).

금광석, 찌꺼기를 없애야 금이 나온다. 천한 것: 인간의 육신, 욕망, 더러움, 자기 의, 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3) 그들처럼 하지 말라(19). 아무리 그들이 듣지 않아도 목사가 쏘(show)하지 말라.

(4) 하나님의 약속(19-20): 견고한 놋 성벽, 구원, 구속

결론

낙심이 오게 되어 있다(무응답, 고난, 무보상): 새로운 계시, 경험, 진리를 구하지 말라.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 내게 있다. 내의를, 공로를, 순종을,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가?

목사도 돌이켜야 한다.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은 꾸지하지 않는다. 가장 인간적인 목사를 하나님

과 성도들은 사랑한다(모세, 엘리야, 요나). 완벽주의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융통성과 타협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다.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성도들과

동고동락할 때 하나님이 다시 충전시킨다. 놋 성벽, 구원, 구속, 재충전해서 주님의 일을 하자.